교인이 관계를 끊을 사람, 지속할 사람

(고린도전서 5:9~13)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인이 관계를 끊을 사람, 지속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교인이 관계를 끊을 사람, 지속할 사람"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는 십자가 생활화의 실천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말씀은 약간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실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면 당장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에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하였고 13절을 보면"…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인간관계에 직접 연결이 되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는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표현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보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편지는 이미 유실되어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는 차별 없이 사귀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러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됨을 지적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귀다”로 번역된 부분은 “그 가운데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근원적으로 끊어내서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음행, 탐하는 일, 속여 빼앗는 것, 우상숭배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악행들이 아닙니다. 인격의 체질이 되어서 나타나는 악행입니다. 음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속여서 빼앗는 것이 체질이 된 사람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반인들을 단절하고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교인은 세상 속에 있기에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인의 삶은 언제나 교인 아닌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자면 지옥행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삶은 언제나 지옥행 사형수들에 둘러싸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실존상황을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에게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사실로 믿는다면 지금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지옥행 사형수들 때문에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악행자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일반인들에게서 악행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음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적인 음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음행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고린도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의 음행처럼 사회적으로 보편화 된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탐욕과 우상숭배도 언급됩니다. 꼭 불상 같은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이기에 이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죄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소속된 지역과 단체라는 인간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무조건 등지고 떠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인은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위일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교인은 하늘 깔때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의 입구를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주입구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운을 세상에 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일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교인이 지옥행 사형수인 일반인들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본문에 언급된 음행과 탐욕과 속여 빼앗음과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이 일반인들과 관계하지만 반드시 그들과 차별화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일반인과 똑같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무조건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십자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산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 깔때기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라 일컫는 자는 교인 중에 섞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을 똑같이 전해 들은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유일한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못 들은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먹을 때에만 유일하게 있음과 유일하게 좋음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라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 생활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유지되어야 할 곳은 예배당이나 기도원이 아닌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보면 왜 악행을 저지르는 교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밝힌 바대로 교회를 다시 세우려 마음먹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과 분파에 휩쓸려 일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사람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교인이 관계하는 대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교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참 교인은 극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먹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반인이 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행이 체질이 되어버린 일반인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부류인 참 교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남은 참 교인들은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과 모두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 중에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참 교인이 관계할 수 있는 부류에 대해 살펴보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일반인이 된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함을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도 관계하게 됩니다. 이들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고 우상숭배도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는 체질적인 죄악을 범하고 삽니다. 그러나 교인은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늘의 기운을 뿜어내는 하늘 깔때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반드시 관계를 끊어내야만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부류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서 악행이 체질이 되어버린 일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유일한 길로써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먹어야 함을 이론적으로라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인들 중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악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일들을 체질적으로 반복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과의 관계는 잘라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악행이 체질이 되어버린 상태와는 다릅니다. 악행이 체질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서 푹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세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들어올 때 마음에서는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마치 메주 뜨듯이 마음에서 세상이 발효되어버리면 그 기운이 인격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질은 십자가 생활화를 원만하고 매끈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절뚝거리는 모습일 수 있고, 십자가 생활화를 때때로 잊어버릴 수는 있으나 마음에서 십자가를 붙잡고자 한다면 세상이 마음을 지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옴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들어와서 메주 뜨듯이 발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먹는 일을 완전히 놔버린다면 마음에 들어온 세상은 인격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음행, 탐욕, 속여 빼앗는 일,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과 같은 일이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 중에 이러한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 끊어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끊어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끊어내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를 전해야 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먹음으로써 삼위일체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기운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만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가 우리가 끊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일반인이 되어버렸고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는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생활화에 근거되어서만 성립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절을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함께 모인 자들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서 악행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이 들어온 상태를 방치해서 체질이 되어버린 부류입니다. 십자가를 깜빡 잊은 동안에 세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십자가를 빨리 기억해서 세상이 들어온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 들어온 세상이 메주 뜨듯 발효되어서 나의 인격 전체에 기운을 뻗치고 체질화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체질은 음행, 탐욕, 속여 빼앗는 일,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는 악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가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 않기에 이러한 부류가 알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질은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던 분께서 어느 날 더는 듣지 않게 되고 종적을 감춰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임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울타리 삼은 모임 속에 남아있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이 없는 상황이기에 스스로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몇몇 끊어지는 현상을 보면 십자가 생활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먹는 십자가 생활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가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다잡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틈만 있으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이 들어온 상태에서 충분히 썩고 발효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나의 주변에 함께 있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틈만 있으면 세상은 마음 안으로 파고들어 옵니다. 형제라고 마음을 열고 관계하는 사람이 실은 마음에 세상을 담고 썩히고 발효시킨 기운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약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치고 들어오는 세상의 기운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악행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향한 최선의 사랑이 끊어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끊어내야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답시고 그 사람을 품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 사랑이 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내게서 그 사람의 육신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육신이 있고 나도 육신이 있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붙들면 나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인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이고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나와 관계하는 동안에 나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크게 느꼈다면 내가 끊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상실감이 생길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계기로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끊었을 때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원망하며 떨어져 나간다면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암을 고치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치료 중에 암세포도 죽지만 살아있는 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것밖에 없다면 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세포까지 죽여가면서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재생의 가능성을 희망해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음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끊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

한 사람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이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교인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교인으로 부르고 형제로 부르는 동안에 나의 정체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끊어냄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놔버린 사람은 참 교인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웃이나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이제까지 오랜 기간 유지해 오던 인간관계를 끊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다닌 예배당 사람들과 어떻게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종교인들의 얼굴을 봐서 끊기를 민망해합니다. 이 세상 삶의 실제적 유익을 위해서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심심할 때 모여서 먹으러 간다든지, 2박 3일 여행을 간다면 소외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언제나 부차적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마음을 쓰고 유지하도록 정성을 들여야 할 대상은 보이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시험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의 문제를 짚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9~10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대로 악행을 행하는 자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판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들어오려고 하거나 들어오기 위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제하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연쇄과정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가는 일이 없다면 판단을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끊도록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 또한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기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도 이미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진리의 기준인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붙잡고 있으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다면 옳은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먹는 것을 놔버린다면 그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판단하고자 하지 않지만 판단은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겉모습인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붙잡으려는 형제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뜻을 주고 계신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겉모습으로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장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판단에 대해 말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사람이냐 먹지 않는 사람이냐가 기준입니다. 하다못해 십자가의 죽음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옳은 상태이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놔버린다면 무조건 그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름의 결과는 음행, 탐욕, 속여 빼앗는 일,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는 악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유지와 단절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중에 이 유지와 단절을 실제로 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분명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끊어야 될 자와 맺어야 될 자와 유지해야 될 자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